

자유국민연합(가칭)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최단기간 내에 선진경제건설과 정치 민주화를 일궈냈습니다. 교육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과 국민 개개인의 인권도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어 국민 중심의 복지국가를 구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세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로 자리잡기 보다는 거대 양당의 대립과 분열을 초래, 정당의 이권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가치가 실현되지 못한 채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계층 간의 격차로 인한 갈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전통 민족 공동체 마저 상실될 지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은 코로나'19 이후 닥친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과 시장 불안을 장기화 하였습니다.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내세워 방역 패스라는 특별 조치를 하긴 하였으나 뚜렷한 위기대응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단절, 시장경제가 활성화 제약 등 더욱더 국민의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진로지도의 부재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 없는 사회로의 추락은 민족 공동체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민주주의 정치를 반성하고 올바른 국민의 삶과 새로운 제반 역할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의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 국민이 견인하고 나아가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자유국민연합당'은 첫째, 국민과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과 삶과 직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 정립에 앞장서고 이에 부응하여 새 시대 선진 한국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당원을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